

제주 4·3 해원상생곳의 재조명*

- <차사영맞이>의 역할과 해원상생의 의미를 중심으로 -

강 소 전**

— <차 레> —

- I. 들어가며
- II. 4·3 해원상생곳의 기획과 전개
- III. 해원 : <차사영맞이>를 둘러싼 죽은 자의 억울한 이야기
- IV. 상생 : 터진 가슴으로 만나는 한판 눈물의 재회
- 상처 입은 공동체의 복원과 새로운 연대의 시작
- V. 글을 마치며

I. 들어가며

2003년 10월은 제주 4·3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완전히 흡족할 만한 상태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사건 발생 이후 50여 년이 넘게 해결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조금이나마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분수령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작년 10월에 있었던 노무현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는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애써왔던 모든 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간 4·3은 '폭동'과 '사태', '사건'과 '항쟁' 등 무수한 이름 사이에서 헤매어 다녀야만 했다. 각자 자신이 속한 입장에서 4·3을 재단하려 하였고, 정

* 여러모로 많이 모자란 글을 읽고 심사를 맡아 소중한 평을 하여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부족한 점들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참고해 나갈 것을 밝힌다.

**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석사과정

치권력에 따라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은 끝없는 줄타기를 해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4·3의 진실을 향해 모든 영역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고, 이 중에서 4·3을 둘러싼 문화예술운동 영역의 역할은 다른 분야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모자람이 없었던 그야말로 지난한 투쟁의 선구자였다고 볼 수 있다.

1979년 현기영의 『순이삼촌』이 가져온 충격은 대단한 것이었다. 어느 누구도 4·3을 입에 올릴 수 없을 때, 비록 길지 않은 분량의 소설이었지만 그 속에서 4·3의 아픔을 이야기한 것은 향후 20여 년이 넘게 펼쳐질 4·3 문화예술운동의 시발점이었는지도 모른다.

현기영은 북촌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집단적으로 제사를 지내며 그들끼리만 모여 '소곤소곤' 그리고 '몰래몰래' 이야기하던 진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그리하여 '까마귀 모른 제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에 절규하며, 죽은 자를 기억하고 살아남은 자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다. 어쩌면 4·3을 둘러싼 문화예술운동이 지향하는 것도 바로 이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그동안 고통받았던 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상처를 어루만지며 폭넓게 사람들과 교감하고자 하는 것 말이다.

따라서 이 글은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지향점을 가지고 일관되게 펼쳐진 제주문화예술운동에 대한 재조명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다만 그 중에서도 범위를 좁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제주도지회(이하 제주민예총)가 1994년부터 시작한 <4·3 문화예술제>의 프로그램 가운데, 2002년부터 기획한 '찾아가는 위령제, 4·3 해원상생굿'²⁾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올해로 11회 째를 맞는 제주민예총의 <4·3 문화예술제>는 제주사회에서 4·3을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가장 중심적인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그만큼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뒤따랐으며 크고 작은 시행착오도 겪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4·3

-
- 1) '까마귀 모른 제사(까마귀 모른 식개)'는 정식으로 모셔야 될 사람이 모시지 못하는 제사를 뜻한다. 누구도 모르는 조용한 제사로서 그날 밤 집안식구들만 모여 앉아 '불 훔 접시 싸는 식개'로 관념되고 있다. (진성기, 『제주도민속-세시풍속-』, 제주민속연구소, 1997, 129~130쪽)
 - 2) 2002년 다량쉬굿부터 시작된 4·3 해원상생굿은 제주민예총이 기획하고, 굿의 시행은 칠머리당굿보존회(회장 김윤수(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굿 기능보유자))에서 맡아서 진행하였다.

제주 4·3 해원상생굿의 재조명

문화예술제)는 가장 낮은 자세에서 문화예술인의 치열한 감성으로 한 시대와 개인, 그리고 공동체의 비극을 조명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것은 관 주도의 딱딱하고 항상 본질은 비껴간 채 변죽만 울리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행사들과는 분명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억울하게 죽어간 자들에 대한 '해원(解冤)'과 살아남아 그들을 기억하는 자들이나 또는 자라나는 후세들과 함께 평화롭게 '상생(相生)'하고자 하는 그 나름의 명확한 철학과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민예총이 집중하는 '해원과 상생'의 모티브는 제주 4·3의 해결을 위해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 굿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프로그램들은 더욱 제주인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다가가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굿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해원과 상생'의 의미를 극대화하며 더불어 한판 느끼고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앞으로 대체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굿이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성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예술적 측면사이의 명확한 인식과 자리매김을 비롯하여 해원상생굿을 둘러싼 충분한 기획과 그러한 기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세부내용들과 집행, 유족들과의 관계설정 등 말이다. 이 글이 목적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찾아가는 위령제, 4·3 해원상생 굿'의 취지와 기획에 충분히 공감하며 그동안 시행된 3번의 해원상생굿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문제점이나 미비한 점을 밝혀 보이는 일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4·3 해원상생굿에서 펼쳐지는 〈차사영맞이〉 — 제주도 굿 ≪시왕맞이≫중의 한 제차 — 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해원과 상생의 의미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잘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 시론(試論)적 입장에서 고민해 보고자 한다.

-
- 3) 해원과 상생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장치로서 반드시 '굿'이라는 형식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유족들의 원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제주민예총은 제주도 굿을 중심으로 4·3관련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는 오랜 역사의 시간 동안 굿이 제주 민중들과 삶의 애환을 같이 나누었던 것으로 가장 민중적이고 기층적이며 해원과 상생을 이루는데 무엇보다도 적합한 방식이라고 나름대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굿 이외의 장치들에 대한 고민은 일단 제외하기로 한다.

II. 4.3 해원상생곳의 기획과 전개

1. 기획과 전개

4.3 해원상생곳은 원래 처음에는 순차적으로 매년 진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해원상생곳이 처음 실시된 '2002년 다랑쉬굴 해원상생곳(이하 다랑쉬굴)'이 소개된 제주민예총 팸플릿을 살펴보면 그 명칭이 '다랑쉬굴 발굴 10주년 기념 위령·해원상생곳'으로 나타나 그 이후에 전개된 '찾아가는 위령제'라는 내용이 보이질 않고 있다. 또 주관도 '제주민예총 4.3사업단 다랑쉬위령제 기획위원회'로 되어 있어, 그 이후에 전개된 '제주민예총 4.3사업단 해원상생곳 기획위원회'와는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한다면, 현재의 '찾아가는 위령제, 4.3 해원상생곳'이 처음에는 <다랑쉬굴 발굴 10주년 기념>으로 일회성으로 기획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모두 알다시피 다랑쉬굴이 발견됐을 때의 그 충격과 그리고 이후에 전개된 다랑쉬굴에 대한 입구봉쇄, 유골화장 등으로 인해 당시에 죽은 자에 대한 변변한 위무 한 번 못했기에, 2002년의 위령제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기획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1년부터 '잃어버린 마을'에 대한 제주도의 표석세우기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도 다랑쉬굴 기획에 한몫 했음직 하다. 당시 잃어버린 마을을 기억하고자 세우는 표석의 내용이 두루뭉실하고 애매모호하게 표현돼 실망을 자아내기도 하였으나, 다랑쉬마을 자체가 잃어버린 마을이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이후 '찾아가는 위령제' 기획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해원상생곳이라는 문화예술운동 형태는 비단 찾아가는 위령제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전개된 제주문화예술운동의 중심축에는 언제나 굿이 있었으며, 그것은 늘 해원과 상생의 중심 주제로 기획되고 진행되었다. 따라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해원상생곳은 일단 2002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한정한다고 다시 한번 덧붙여두고 싶다.

아무튼 2002년에 다랑쉬굴에 직접 찾아가서 실시했던 해원상생곳이 이후에 제주민예총의 '찾아가는 위령제, 4.3 해원상생곳'으로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는 아주 중요한 점이다. 이것은 일회성으로 기획

제주 4·3 해원상생극의 재조명

했던 것으로 짐작되는 다랑쉬곶이 나름대로 안팎으로 좋은 반응을 얻은 결과에서 비롯되었음이 틀림없다. 또한 학살현장터에 직접 찾아가서 정서적으로 합일되는 '우리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높이 평가받아야 할 일이다. 게다가 일정부분 유족들과 직접적으로 함께 함으로써, 기존의 마냥 추상적이고 두루뭇실하며 온갖 정치인과 기관장들의 독무대였던 여타의 모습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또한 이전에 기획했던 제주민예총의 해원상생극의 틀과는 약간 다른 면모를 보여 '작게 그러나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유족들의 연유를 풀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 98년에 치러진 한라체육관의 해원상생극⁴⁾이나 그 밖의 다른 혼합공연의 형식과 2002년의 다랑쉬곶은 분명 보이지 않는 차별성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일회성으로 기획됐던 다랑쉬곶 이후 찾아가는 위령제라는 고정된 기획틀을 확고히 한 계기가 되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진정한 해원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일례로 98년에 50주년을 맞아 한라체육관에서 벌어진 해원상생극은 기획의 범위와 참여 유족의 수가 너무 넓었기 때문에 그 넓은 범주를 모두 아울러야만 하는 두루뭇실하고 추상적인 해원상생극이 되고 말았으며, 중간에 다른 공연물이 혼합배치되거나 정치인 등 다소 이질적인 참여자의 가세와 함께 얽혀 그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도했던 역할기능을 이루어내기에는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였다.⁵⁾

또한 지난 2000년 <제7회 4·3 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4·3 당일 저녁에 '해원상생의 큰 곶'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연합공연을 하였는데, 전통적이며 무속적인 곶판이라기보다는 전체적 모티브를 곶에서 원용한 예술공연의 형태였다.⁶⁾ 요컨대 말하고자 하는 것은 2002년의 해원상생극 이전에는 그 형태가 해원상생극과 여러

4) 98년 한라체육관 해원상생극은 제주 4·3 제50주년 기념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그러나 제주민예총 창립 10주년 팸플릿자료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98년의 해원상생극의 기획과 진행에 제주민예총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5) 1998년 제50주년 기념 해원상생극에 대해서는 현혜경, 「의례, 공연, 그리고 연대의 문제 : 50주년 기념 4·3 도민해원상생극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제18집, 제주학회, 2000 참조.

6) 2000년 제7회 4·3 예술제의 '4·3의 밤, 해원상생의 큰 곶'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열림마당> 신가슴 열림:시낭송 <땃힌 가슴 열려옵서> 장사의 소리판, 지희장 인사말, 이애주 춤판, 황석영 덕담 <4·3을 딛고 새천년으로, 분단을 딛고 통일로> 최상돈 노래, 풍물판굿-신나라, 소리판-소리나라, 모두 함께 '남누리 북누리'로 짜여져 있다.

문화예술단체가 서로 교차적으로 진행하는 혼합공연의 형태거나, 아니면 문화예술 단체들의 혼합공연 자체를 해원상생의 굿판이라고 이름하거나 했다는 것이다. 물론 1998년에 서울 연강홀에서 열린 진혼굿⁷⁾의 형태처럼 좀 다른 기획물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기획형태를 거론하는 것은 그것이 무슨 큰 문제점을 내포했다고 지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전의 해원상생굿 기획들이 2002년 다량쉬굿을 기획로 방향이 전환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싶기 때문이다. 이는 해원상생굿이 다른 공연과 더불어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자신 고유의 독립된 형식을 갖추었다는 것을 뜻하며 굿에서의 해원상생의 형식과 내용을 한층 강화해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동안 벌어진 3회의 해원상생굿을 차례로 간단히 조명해보자면, 앞서 말한 2002년의 다량쉬굿은 '살아남은 자들의 흰그늘'이라는 주제로 북제주군 구좌읍의 사라진 마을인 다량쉬마을에 있는 다량쉬굴에 가서 당시에 거기서 죽은 하도리·종달리 주민 1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어 2003년에는 북제주군 조천읍 북촌리에 가서 '찾아가는 위령제 : 북촌리 대학살 해원상생굿(이하 북촌리 굿)'을 '해원상생의 흠가슴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북촌리 마을 안 당팓 학살터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거행하였다. 그리고 2004년의 해원상생굿은 제주시 화북동 곤을마을에 찾아가 '찾아가는 위령제 : 화북 곤을동 초토화 마을터(이하 곤을동굿)'를 '울담만 남은 보름코지, 멧헌 살 풀다'라는 주제로 실시했다. 각각의 굿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이후 이 글의 전개 곳곳에서 다루고자 한다.

3회에 걸쳐 이루어진 해원상생굿은 신선하고 구체적인 기획 덕분에 안팎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각각의 굿들은 그 마을 사정에 맞게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으며, 다음 해에 대상 마을은 어디일까 하는 나름의 궁금증도 불러 일으켰다. 이처럼 해원상생굿은 2002년도를 기점으로 중대한 질적 변화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7) 1998년 4월 4일과 5일에 4·3 제50주년을 맞아 기획된 것으로 "설우신 한라의 닛들이여 바람타고 살려옵서"라는 주제로 벌어졌다. 첫째날은 진혼굿(죽은 닛을 위하여), 둘째날은 안택굿(산자를 위하여)으로 제주심방 정공철과 무녀 정순덕이 각각의 굿마다 서로 제차를 번갈아가며 진행했다.

2. 문화예술운동으로서의 굿

4·3관련 문화예술행사에서 굿은 중요한 콘텐츠 역할을 한다. 특히 제주민예총의 프로그램에서 굿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크다. 그야말로 굿이 직접적으로 내용을 이루기도 하고, 다른 기획물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그 기저에 흐르는 소스를 이루고 있다. 이 때의 굿이란 제주도의 전통적인 굿을 말하는 것으로, 오랜 시간을 두고 도민들의 마음에 알게 모르게 형성된 정서와 그 맥락을 같이 하며 민중의 애환을 어루만질 수 있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굿의 여러 모습 중에서도 죽음과 해원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살아남은 자 역시 위로 받는 내용 등이 중심이 되고 있어 아무래도 제주굿 가운데서도 《시왕맞이》와 관련이 깊다.

따라서 이러한 굿과 문화예술운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나마 논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어떻게 해서 굿이 기획과 내용에 중요하게 쓰이는지, 그리고 굿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무엇을 의도하고자 하는지 살펴보자.

우선 제주민예총이 다량쉬굿을 준비하면서 밝힌 기획의도를 보면, “다량쉬동굴 발굴 10주년을 기념해 우리는 단순한 위령제가 아니라 예술로서 보시를 하겠다는 것이며, 예술이 역사를 안고, 인간의 업보를 안고, 예기(藝氣)로서 제(祭)를 지내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서 “춤꾼은 춤으로, 심방은 굿으로, 풍물쟁이는 풍장으로, 버려진 ‘역사의 동토’에 제주 자연으로부터 생명을, 고난의 역사로부터 진실에 젖줄 댄 정기를 불어넣어 땅을 살리고자 함이며, 그 살림의 과정에서 땅의 그늘, 액의 그늘을 벗겨 광명천지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제의”라고 밝히고 있다.⁸⁾

이들은 <역사의 예술화, 사건의 예술화, 의례의 예술화, 시각적 예술화, 정치적 예술화, 공간적 예술화>를 목표로 설정해 놓고 있으며, 이러한 해원상생굿의 기획 의도는 찾아가는 위령제로 고정된 틀을 가지기 시작한 그 다음해에는 더욱 확실히 드러난다. 즉 “해원상생굿은 아픈 역사의 생채기를 지니고 있는 마을 및 장소를 찾아 그 죽음의 현장에서 펼쳐는 혼살리기, 넋들이기, 터살리기의 제의”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⁹⁾ 말하자면 죽은 자는 원한을 풀고 편안히 잠들며 살아남은 자는 회한을 뒤로하고 새 기운을 되찾는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형식이 굿이며, 이러한 굿을 예술로서 승화해 역사복원에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이다. 제주민예

8) 2002년 4·3 문화예술제 팸플릿 참고

9) 2003년 4·3 문화예술제 팸플릿 참고

총이 제주지역 민족예술인들의 연합체이고, 이들은 예술가이므로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4·3을 둘러싼 문화예술운동이 1980년대 후반부터 다시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당시 80년대에 주요 흐름 중의 하나였던 민중민속학을 표방한 학자들의 관점과도 일정부분 연결된다. 예를 들어 “굿을 연구대상인 자료로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문화로 파악하여, 굿판은 민중의 삶의 현장이며, 굿은 민중의 집단적 미의식을 표현한 민중의 예술이므로 거기에서 민중정서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민중예술의 형식을 창출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굿을 보는 시각은 물론 굿의 정의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된다.¹⁰⁾

따라서 “굿의 의미를 생존을 지속시키는 삶의 법칙인 문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주기적이며 의례적인 종교적 의식만은 아닌 것이며, 굿판은 민중사의 현장이며 집단신명의 노동판이며 생존을 위해 저항하는 싸움판이며 신나게 노는 놀이판이다. 그러므로 굿은 포괄적인 의미로 역사적 현재, 공간적 현장에서의 생존과 직결된 집단행위 일체를 말하며, 민중의 실존을 폭로하고 삶의 의미와 활력소를 공급해주는 자기완결적인 것으로 새로운 질서를 재구하기 위한 한판 벌림이다. 현실의 모순을 폭로하면서 무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바꾸는 강한 생명력을 인간은 굿을 통하여 획득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굿을 신명의 예술이라 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하고 있다.¹¹⁾

제주민예총이 해원상생굿을 기획하면서 목표로 세운 ‘의례의 예술화’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굿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민중의 모든 생활양식과 정서를 포괄해서 담아낼 수 있는 보다 큰 그릇으로 인식한 결과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민중과 부합하는 예술방식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죽은 자의 입을 빌어 4·3의 비극을 재현하는 제주 민중의 유일한 역사적 방법이며, 심방과 조상영혼과 굿에 모인 사람들의 생활사가 한데 어우러져 치유능력이 있는 한 줄기 이야기가 새롭게 조성되는 역사적 담론(historical discourse)인 동시에, 비현실적인 담론전략으로 쉽없이 감시하는 세력을 직접적으로 피하는 민중의 ‘전복의 예술양식(the art-form of subversion)’이라고도 말해진다.¹²⁾

10) 문무병, 「제주도 굿운동의 실천과제」, 『민족과 굿』, 민족국회, 학민사, 1987, 185~186쪽

11) 문무병, 앞의 책, 186쪽

12) 김성래, 「원혼의 통곡 : 역사적 담론으로서의 제주무속」, 『제주도연구』 6집, 제주도연구회, 1989, 74~75쪽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문화예술운동으로서의 굿이라는 것이 일정부분 타당성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종교적인 의례로서의 굿과 공연으로서의 굿이 요즘 자주 복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이에 대한 고민은 차후에 심도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의례로서의 굿이 다분히 그 자체의 종교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공연으로서의 굿은 예술성(연회성)이 보다 한층 강조된다고 할 때, 굿에서 종교성과 예술성(연회성)은 서로 분리할 수 없으면서도 각각의 특징이 분명하게 조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마당극에서 마당굿으로의 변화가 예술의 형식을 빌어서 전개하던 정치적 담론을 이제 종교적 형식을 통한 것으로 변형하려는 것이며, 소위 민간종교 내지는 신앙을 응용의 차원에서 결합하는 것이라는 김광익의 의견¹³⁾은 아직도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김성례는 홉스봄(E. Hobsbawm)의 견해를 빌려 오히려 무속의 전통은 과거의 것이기보다는 최근의 것이며 창안된 것으로, 민속문화·민족문화의 기층으로서 이것을 불변의 것으로 재현하여 역사적 진실성을 부여하는 시도들은 무속전통을 역사적 담론으로 재창출하는 것이 된다¹⁴⁾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점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우리가 주목하는 4·3 해원상생굿이 바로 그 지점이 될 수도 있다. 굿이 가지는 모든 측면, 즉 종교성·예술성·민중성·사회성·정치성 그리고 창출된 전통(invented tradition)¹⁵⁾ 등 모든 측면의 다양함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자체로서 언제나 당시의 시대상황과 맞물리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따라서 이후 하나하나씩 연구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굿에 종교성만 있는 것도 물론 아니고 그렇다고 예술성이 전부인 것도 아닌 것처럼, 다양한 굿의 변주들이 굿의 기획자나 굿을 바라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울림을 갖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13) 김광익, 「정치적 담론기체로서의 민중문화운동 : 사회극으로서의 마당극」, 『한국문화인류학』 21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89, 74쪽

14) 김성례, 「무속전통의 담론분석 : 해체와 전망」, 『한국문화인류학』 22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90, 215쪽

15) 홉스봄(E. Hobsbawm)·랑저(T. Ranger) 편, 최석영 역, 『전통의 날조와 창조』, 서경문화사, 1995

Ⅲ. 해원 : 〈차사영맞이〉를 둘러싼 죽은 자의 억울한 이야기

1. 〈차사영맞이〉의 구조와 기능

4·3 해원상생굿에서는 〈차사영맞이〉라는 제차(祭次)가 중심이 된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4·3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시왕맞이》라는 굿이 적합한데, 4·3 해원상생굿에서는 시간적·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시왕맞이》의 모든 제차를 다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제차인 〈차사영맞이〉를 택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시왕맞이》의 〈차사영맞이〉를 4·3 해원상생굿에서 실연하는 셈이다.

이러한 〈차사영맞이〉에 대한 연구는 이미 기존에 이루어진 바 있다. 현용준은 〈차사영맞이〉의 뜻과 진행과정에 대해서 밝혀놓고 있는데, 즉 〈차사영맞이〉는 저승의 길을 치워 닦아 차사와 사령(死靈)을 청해 들여 사령의 말을 듣고 저승의 극락으로 보내는 제차를 말한다. 사령을 맞이하기 위하여 저승의 길을 치워 닦는다는 면에서 '질침'이라 하고, 맞이하는 것이 차사와 사령이라는 점에서 '差使靈맞이'라고도 한다. 또한 그 진행은 '날과 국 섬김—연유닦음—군문열림—질침—열두문에 인정걸기—영개울림—열두문 열림' 등의 소제차로 이루어진다고 밝혔다.¹⁶⁾

《시왕맞이》속의 〈차사영맞이〉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4·3 해원상생굿에서 펼쳐지는 〈차사영맞이〉도 원칙적으로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다만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전자보다 비교적 간단히 진행되는 면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차사영맞이〉가 4·3과 관련한 해원상생굿에서 가지는 역할과 의미에 집중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제차 중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연유닦음]과 [질침], [영개울림] 등을 중심으로 해원상생굿이 의도하는 '해원'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들 제차의 정의를 짚어보면, [연유닦음]은 날짜와

16) 현용준,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1986, 377~382쪽

장소의 설명에 이어서 무의(巫儀)를 행하는 동기와 이유를 노래하여 신들의 강림을 청하는 차례를 말한다.¹⁷⁾ 또 [질침]이란 모든 <맞이곳> 때에 신격(神格)이 내림하는 길을 치워 닦는 의식이나, 사령을 불러들여 그의 이야기를 듣고 위무하여 저승으로 보내는 길을 치워 닦는 의식 때에 그 소로과정(掃路過程)을 춤으로써 실연하는 제차이다.¹⁸⁾ 그리고 [영개울림]은 시왕맞이나 귀양풀이의 한 제차로, 죽은 영혼의 이야기를 심방이 대신하는 것이다. 신의 의사를 심방이 대변하는 '분부사킴'의 일종인데, 죽은 영혼은 그 서러움을 울면서 말하기 때문에 영개울림이라 한다. 심방은 이 [영개울림]을 할 때 죽은 영혼을 청해 놓고, '심방의 입을 빌어 말한다'고 하면서 영혼의 생전의 심회, 죽어갈 때의 서러움, 저승에서의 생활, 근친(近親)들에게 부탁의 말을 울면서 말한다. 그러면 그 근친은 영혼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으로 듣고 울음을 터뜨리게 된다.¹⁹⁾

이처럼 <차사영맞이>의 중요한 제차를 살펴보았는데, 이들 제차는 하나같이 억울한 영혼의 '해원'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심방도 곳의 차례차례를 지키며 유족들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죽은 영혼을 불러와 해원을 시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들 제차는 예술적 특징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데, 가령 심방이 길을 치우는 장면을 하나하나 춤으로써 시연하는 장면 같은 경우와 여러 가지 사설이나 노래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고향을 둘러싼 모든 이들의 심금을 울리는 풍부한 감수성을 유발하는 기능도 있다. 유족들의 연유와 영개울림을 듣다 보면 4·3과 관련해 동시대의 섬사람들이 느끼는 연민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족들 중에 전통의 무속적인 곳에 대해 종교적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로 하여금 깊은 종교적 심성을 더욱 굳게 다지게 하기도 한다. 이는 저승 열두문에 인정을 걸고 나중에 그 문을 열려 맞을 때, 진실로 사령이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신앙심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이처럼 억울하게 죽은 자의 사연을 듣고 그 원한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나중에 거론하게 될 상생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차사영맞이>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2002년부터 벌어진 해원상생곳에서 어떻게 해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

17) 현용준, 앞의 책, 263쪽

18)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896쪽

19) 현용준, 앞의 책, 890쪽

2. 해원을 위한 장치들

앞서 말한 중요 제차들은 일단 다량쉬굿을 비롯한 3회의 해원상생굿에서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두에서 이야기한 기존의 해원상생굿이 두루뭉실하고 추상적이거나 어느 정도 공연적인 요소에 치우친 감이 있다고 한다면, '찾아가는 위령제'에서 보여준 해원상생굿에서는 이전보다는 더욱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보다 자세하게 연유를 닦을 수 있고, 영개올림을 할 수 있다. 공간적인 설정도 한정되어 있어서 그 마을과 관련한 면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으며, 학살터라는 현장성이 있어서 그 의미가 더욱 배가된다.

또한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족의 참여는 연유닦음과 영개올림의 주체와 객체가 명확히 설정되기 때문에 보다 현실성이 있으며, 바로 이 점이 문화예술운동으로서의 굿을 말하기 이전에 신앙민으로부터 뿔어져 나오는 원초적인 정서와 관련되는 종교성의 한 단면이라 하겠다. 이것은 한편 심방이라는 존재가 엄연히 이른바 무교(巫敎)²⁰⁾의 사제자이며, 굿법을 지키며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차례차례 의례를 진행시켜 단골신앙민들이 서로 종교적 체험을 공유하게 만드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순서들이 가지는 기능과 의도는 2002년 이전의 해원상생굿에 비해서는 살아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원의 장치들 중에 소홀하게 취급되는 것도 분명 있다. 이것은 앞절의 〈차사영맞이〉의 구조와 기능에서 중요 제차를 소개할 때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을 정도로 어찌면 오히려 너무 기본적인 것이어서 그런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해원의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바로 [열명]이다. 열명은 [예명]이라고도 하는데, 한마디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다. 이러한 열명은 해원상생굿에서 죽은 자의 이름과 산 자의 이름을 불러주는 의미가 있다. 즉 누가 누구를 해원시키기 위해서 이 굿을 하고 있는지 굿을 하는 내내 불러져야 하는 것이다.

2002년 다량쉬굿에서는 [열명]이 비교적 잘 이루어진 편이다. 아무래도 처음으로 벌어지던 찾아가는 위령제라고 볼 수 있고, 또한 다량쉬굿에서 확실당한 이들

20) '무속'이나 '무교' 또는 '무', 민간신앙, 무속신앙, 민속신앙 등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며, 학자들간에 그 범주와 용어사용에 있어 다소간의 다름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종교적 현상을 밑바탕으로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다.

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까닭에 별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다량쉬굿에서는 모두 11명의 신위가 켄상의 병풍에 붙여졌으며 심방은 연유를 닦을 때나 영개울림을 할 때 이들의 이름을 불러줌과 동시에 누가 굿을 하는지도 밝혔다.

반면에 북촌리굿에서는 켄상 위의 큰 현수막에 근 500여 명에 달하는 죽은 자의 이름을 적어 놓기는 하였으나, 그 수가 너무 많은 탓인지 모든 이름을 부르지는 못했다. 또한 약 29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알려진 곤을동굿에서는 아예 죽은 자의 이름을 적은 그 어떤 장식물도 발견되지 않아 심방은 그냥 일반적으로 “억울하게 죽은 영신님네”라고 추상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가령 북촌리굿 같은 경우에는 죽은 자의 숫자가 너무 많아 행사 진행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모든 이름을 부르지 못했을 수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만약 그런 문제라면 그 다음 해에 벌어진 곤을동굿 같은 경우는 약 29명 정도의 희생자였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얼마든지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곤을동굿에서는 오히려 이전에는 그나마 있었던 현수막조차 보이지 않았다.

더욱이 예를 들어 곤을동굿이 섭외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기획자가 참여유족의 범위를 예상하는데 곤란함을 겪었는데, 실제 행사날에는 다행히 그래도 많은 유족이 찾아와 비교적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기획자측은 유족들이 알음알음 찾아오는데도 임시방편으로라도 신위를 마련하는 데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심방은 [열명]을 할 때 기본적으로 본주측에서 마련한 명단을 가지고 그 이름을 읽기 때문에, 다량쉬굿처럼 병풍에 이름이 붙여지거나 현수막이 걸리거나 하는 등의 장치가 없다면 [열명]을 구체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해원상생굿에서는 유족들뿐만 아니라 기획자도 본주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심방과 사전교감을 나누는 등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였는데 실제로 [열명]의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함이 있었다.

이는 부지불식간에 열명의 기능이 사라지는 것으로 ‘찾아가는 위령제’가 의도하는 직접적·구체적·사실적인 해원의 기능이 약화되는 결과를 수반하게 된다. 왜냐하면 해원을 시키고자 하는 자와 해원의 당사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죽은 자와 산 자가 똑바로 얼굴을 들고 만나지 못하는 것이며, 서로를 바로 지적에 두고서도 어루만질 수 없게 하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점은 다른 위령제에서도 흔히 드러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4·3 주간이

되면 제주도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위령제가 있다. 제주도가 주관하는 위령제에서는 신위가 붙여진 그 좁은 장소에서 뿔뿔하게 적힌 무수한 이름들 사이로 가족이나 근친의 이름을 찾으려고 많은 유족들이 앞다투며 이리저리 손가락으로 헤매어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들에게는 이름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며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름을 발견한 후라야 한 잔 술이라도 올리는 것이지, 만약 이름이 없다면 이는 역장이 무너질 일이다. 2004년 위령제에서는 모두가 그 예전의 '이름판'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타날 것인가를 주목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이전과 그 발상에 있어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해 유족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4·3 평화공원의 조성으로 위패의 전시 모양이 약간 달라지긴 하였지만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의례에서 이름은 중요한 것이다. 이름은 죽은 자와 산 자를 연결해 주는 '본매본짱'²¹⁾과 같은 것이다. 이름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고, 죽은 자는 후손을 그리고 산 자는 조상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열명의 중요성이 3회의 해원상생굿을 거치면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때로는 지역에 따라서 희생자가 너무 많아 일일이 거명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또 살아 있는 유족들과 섭외가 잘 되지 않아 굿을 요청하는 본주의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름에 대한 관심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므로 약간의 사정변경은 있을지라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IV. 상생 : 터진 가슴으로 만나는 한판 눈물의 재회

- 상처 입은 공동체의 복원과 새로운 연대의 시작

1. 살아남은 자를 위한 넋들임

제주 4·3에 대한 기억은 4·3 당시라기보다는 그 후 4·3이 어떻게 탄압되어져

21) 제주도 굿에 나오는 말이다. 신화 속의 주인공들이 나중에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으로 증거물이 될 수 있는 사물을 뜻한다.

제주 4·3 해원상생곳의 재조명

왔는가 하는 것일 수도 있다.²²⁾ 이는 4·3으로 인해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 당시의 고통을 겪어지고 있다면, 피비린내 나는 '사태'의 와중에서도 용케 살아남은 사람들은 당시의 고통에 더하여 최근까지 이어지던 탄압과 멸시의 세월을 견뎌야만 했던 것이다.

그래서 신분을 숨기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아니면 '빨갱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군대에 자원입대하여 전쟁에까지 휘말리는 고통을 겪었다. 1954년까지 몰아치던 4·3의 광풍은 예비검속이라는 구실로 많은 이들로 하여금 여전히 숨죽이고 살게 만들었으며, 4·3이 진정된 이후에도 군부독재시대를 거치면서 늘 연좌제의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만 했다. 90년대 들어 민간인 정부가 세워졌지만 여전히 4·3을 바라보는 본질적인 시각은 바뀌지 않았으며, 97년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서도 안심하기에는 아직 일러 최근의 참여정부에 이르러서야 겨우 사과를 받아내고 비로소 첫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이처럼 4·3을 둘러싼 살아남은 자의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언제나 가위에 눌려 살아왔으며, 냇이 반쯤 나가 한편으로는 피붙이의 유해를 찾아 해매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존재를 부인해 스스로 타자화되는 이중의 삶을 살아왔다. 따라서 '상생'은 바로 이들을 위한 것이다. 죽은 자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잘 위무해 저승상마음으로 돌려보낸 후 유족들은 본래의 자신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다.

2002년부터 기획된 해원상생곳은 일단 이러한 상생을 위한 공간적 구성에도 특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다량쉬곳의 경우에는 곳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11개의 돌까마귀 솟대를 세웠으며, 거기까지 가는 길에 108개의 만장을 길 좌우에 설치하였고 또한 대형으로 열두 저승문을 만들어 행사장으로 가는 모든 이들이 허리를 굽혀 진지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하였다. 북촌리곳도 마찬가지로 열두 저승문과 만장 등이 설치됐으며, 곤을동곳에서도 사라진 마을 전체를 무수한 만장이 감싸는 엄숙한 장관을 연출했고 곳을 하는 장소에도 돌까마귀가 여전히 지키고 있었다.

이런 공간 구성은 이 곳이 해원상생곳을 하는 신성한 자리임을 안팎으로 알리는 동시에, 유족들에게는 과거 사건의 재현이 심방의 사실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가 되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당시의 아픔을

22) 강창일·현혜경, 「4·3 의례와 역사적 기억 : 4·3 위령제의 전개양상과 역사적 기억」, 『역사적 기억과 문화적 재현 : 4·3과 5·18 문화운동』 제4회 5·18 기념 국제 학술대회 자료집, 2003, 54쪽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진지함을 조성해 주기도 했다.

따라서 심방이 굿을 진행함에 따라 공간이 가져오는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고, 시왕문을 하나하나씩 열 때나 소지를 사를 때는 죽은 자와 산 자가 그야말로 복 받쳐 터진 가슴으로 만나 눈물의 재회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50여 년 묵은 체증과 원한은 이제 소지를 사르며 한 줄기 연기로 피워 올려져 허공으로 흩어진다. 산 자의 고통도 것처럼 사라져 다시는 어둔 밤 꿈자리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믿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해원상생굿은 '상생'의 목표를 위해 상처 입은 공동체의 복원과 새로운 연대를 회망하는 기획력도 보여주었다. 다량쉬굿에서는 다량쉬굴의 참상을 알리는 표석을 굴 입구에 설치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역사의 흔적으로 남기고자 노력하였다. 북촌리굿에서는 마을 주민들과 공동으로 '빈상여놀이' ㄷ를 연출해 내어 1954년 세칭 '아이고사건'으로 한차례 큰 흥역을 치른바 있는 주민들의 맏힌 감정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북촌리굿 이후에 마을 유족회의 활동이 더욱 공개적이고 활발하게 돌아가는 효과도 볼 수 있었다. 곤을동굿에서는 해안지역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초도화되어 울담만 남은 마을에 바닷가 돌을 이용해 방사탑(거옥대)을 쌓음으로써 역사의 자리였음을 기억하고자 했다. 이는 곤을동이 차후에 도시계획 때문에 4·3 유적이 사라질 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일정부분 비롯됐으며, 역사의 흔적을 차세대를 길러내는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개발논리에 모든 것을 담아가려는 자치단체에 대한 항의의 몸짓이기도 했다.

앞으로도 어떤 기획력이 계속해서 뒷받침 될 지는 알 수 없으나, 해원상생굿이 단순히 일회성의 굿만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자료를 보존하고 후대와 교감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은 분명 진일보한 4·3 기억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2. 해원상생굿판의 풍경 몇 가지

'찾아가는 위령제, 4·3 해원상생굿'은 전체적으로 보면 큰 무리 없이 주위환경

23) '빈상여놀이'에 관해서 임재해, 「장례관련 놀이의 반의례적 성격과 성의 생명상징」, 『민속놀이와 민중의식(민속학회 학술총서 1)』, 민속학회 편, 집문당, 1996, 125~129쪽 참고. 그는 이 글에서 장례놀이의 구실을 여섯가지로 정리하면서, 살아 있는 사람들의 삶을 확인하고 생명력을 역동적으로 부추기는 삶의 국면으로 전환하는 구실이 있다고 밝혔다.

들과 잘 교감하며 의도한 바를 비교적 잘 살려내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제주적인 위령제의 전형으로도 간주할 수 있으며, 이는 꼭 곳의 방식이 아닌 어떤 매개를 이용해서 할 때라도 일종의 위령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좋은 경험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몇 가지 해원상생의 곳판에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문제들도 여전히 보인다. 첫째는 곳의 실행을 둘러싸고 기획자와 유족들과의 소통여부이며, 둘째는 그런 연후에 유족들이 위로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장치가 다소 약한 점이다. 셋째는 심방과 유족과 일반인들과의 얽힘 현상을 들 수 있다.

첫째 문제는 어려움이 많다. 아무래도 찾아가는 위령제가 일단 사라진 마을이나 학살터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유족의 존재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 아주 적을 수 있으며 그마저도 여기저기 흩어져 살기 때문에 접촉 자체가 쉬운 편은 아니다. 그리고 어렵게 접촉했다 하더라도 그간 억압받은 기억의 잔영으로 인해 공개적인 행사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곳을 받아들이고 싶어도 마을내에서 주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해 소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현상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만약 4·3 유적지 정비와 마을개발이 서로 겹쳐 상처된다거나, 마을 내에서 4·3과 관련해 서로 다른 경험과 상처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지나간 옛 기억을 꺼내서 뭉탈 것이냐는 것처럼 이미 기대를 놓아버린 상태 등등 실제 해원상생곳을 실행하기까지 넘어야 할 과정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50여 년이라는 시간적 흐름으로 인해 마을의 세대 구성이 바뀜으로써 4·3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는 그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해 적극적인 힘을 보태기가 힘든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다량쉬곳이나 곤을동곳은 그런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겪었다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북촌리곳 같은 경우 정도가 마을과 소통이 원만히 이루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차후에 찾아가는 위령제를 기획할 때 기획자의 많은 인내심과, 유족들과고 광범위하면서도 깊이 있는 접촉을 필요로 하게 하는 대목이다.

둘째, 곳의 진행과정 중에 곳판에 참가한 유족들이 위로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좀 더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는 산 자의 억눌림을 해소해 상생으로 가기 위한 길이며, 해원상생곳판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3회의 해원상생곳 동안 유족들은 일반적으로 곳을 내내 지켜보다가 영개울림할 때와 시왕문에 인정 걸고 문을 열 때, 그리고 소지를 사를 때에 참여를 하였다. 참여는 기

획자의 권유를 받아 하나둘씩 앞으로 나오면서 이루어졌다. 물론 굿의 진행 중에 자발적으로 나서서 제주를 올린다는가, 상을 차려 온다는가 하는 모습도 있었다.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굿 제차에서나 그밖에 기획에서나 가능하다면 보다 많은 유족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더욱 강화하는 장치가 늘어나면 좋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유족들을 위한 푸다시를 해서 심방과 유족들과의 신체적인 접촉을 강화해 굿에 보다 몰입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원하는 유족들은 망인의 사진 등을 올려놓게 한다든지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유족들의 젊은 후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눈에 드러나는 점이다. 심방과 유족과 일반인들과의 엇킴 현상이다. 여기서의 일반인은 주로 취재진을 가리키는 말이다. 취재진은 심방의 굿에 너무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는 나머지 심방과 유족들과의 사이에서 공간을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기와 비디오카메라로 무장한 이들은 굿을 하는 내내 심방이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다니며 구경하는 이들로 하여금 굿을 잘 볼 수 없게 교란시킨다. 또한 심방이 유족들을 상대로 영개울림 등을 할 때는 그 중간지대에 들어서서 공간을 분할해, 심방과 유족들이 서로 눈높이를 맞추며 시야를 확보해 대화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심지어는 유족들이 시왕문에 인정걸 때 등의 잠깐 동안의 휴지기에 심방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진다. 심방과의 인터뷰는 굿이 다 끝난 후에 천천히 해도 충분한데 마구 달려드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심방에게나 유족에게나 구경하는 이들에게나 집중력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마디로 굿의 내용을 잘 숙지해 굿을 방해하지 않으며 취재하는 이들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다. 아니 굿을 잘 모르더라도 굿의 진행을 위해 양보하며 물러서는 이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점은 취재의 속성상 불가피한 점이라 하더라도 취재진의 자성을 촉구할 만한 사안이며, 또한 기획자의 엄격한 제장(祭場)관리가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원래 우리의 굿판이 사람들이 들고나는 것에 비교적 관대한 편이기는 하지만, 제주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굿에서도 본주와 심방 사이에 제3자가 들어서서 눈높이를 맞추며 대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은 없다. 아무리 한판 별림의 굿판이라지만 최소한의 지켜져야 할 제장의 분위기라는 것은 있게 마련이다. 이 점은 앞으로 기획자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당일 현장 공지, 자유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철저한 포토라인의 설정이 필요하다. 정말 누가 심방인지 누가 유족인지 누가 취재진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한편 유족들의 자리에 대한 안배 문제도 있다. 만약 곳이 당곳이나 사가(私家) 곳이라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당곳 같은 경우에는 단골신앙민들의 자리가 자연스럽게 있으며, 또한 사가에서는 관련된 사람들만 참가하기 때문에 조용하게 치러진다. 그러나 해원상생곳은 기획자가 연출한 어느 정도는 인위적인 곳이며, 학계나 언론 등 도내외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곳을 구경하는데 참가제한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유족들과의 사정협의를 있다면 몰라도, 일단은 유족들이 취재진이나 구경 온 일반인들과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얽혀 버리면 곳에 몰입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족들과 일반인이 다같이 어울리는 대동판이 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겠으나, 아쉽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북촌리곳을 제외하고는 아무데나 한쪽에 자리잡은 유족들은 안그래도 그 숫자 자체도 미약한데 일반인들과 섞어버려 제장에서 심방과 유족이 전체적으로 합일되는 풍경을 연출하지 못했다.

해원상생곳에서 유족은 기획자와 더불어 본주(本主)의 역할을 한다. 일반인들과 한편으로는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다르다. 본주는 심방을 통해 죽은 이와 만나며 삶을 나눠야 할 곳판의 주인공이다. 그야말로 이 곳판에서 상처 입은 공동체를 복원하며 새로운 연대를 시작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인물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유족들의 자리배치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것은 일반인과 유족들을 딱딱하게 기계적으로 갈라놓자는 말이 아니라, 해원과 상생을 위한 당사자이자 연대의 주인공으로서 그에 걸맞은 합당한 대우를 하자는 말이다. 곤을동곳에서 유족 할머니들은 울퉁불퉁한 바닷가 돌 위에 어렵고도 힘들게 앉아 있었다.

V. 글을 마치며

이제 4·3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동안의 힘겨운 노력 끝에 성취해낸 성과는 진정 눈물겨운 것이었다.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과 대통령의 사과 이후 4·3은 공식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제 시작인지도 모른다. 전환점이 아니라 진정한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 앞으로는 매끈하며 모나지 않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거칠게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진정한 해원과 상생을 꿈꾸어야만 한다. 그 해원과 상생의 몸짓에는 따뜻함이 배어나길 원한다.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의례형식을 벗어나 진정한 의례와 기억의 형식을 찾아 나서야만 한다.

이러한 점은 예전보다 기억의 방법이 보다 '자유로워진' 이 때, 앞으로의 문화 예술운동은 더욱더 자신의 모습을 부단히 되돌아보고 점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중심내용과 형식으로 삼고 있는 '제주도 굿'의 종교적·예술적 측면이 당 시대의 역사·사회적 맥락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변화하는지 다양한 검토와 접근을 꾸준히 시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3의 지난한 과정에서 제주 문화예술운동이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해원상생굿은 비교적 작지만 알찬 내용을 보여주었다. 해원상생굿에서는 제주도 굿의 하나인 《시왕맞이》중의 〈차사영맞이〉가 펼쳐진다. 해원상생굿에서 〈차사영맞이〉는 죽은 자를 해원시킨 후, 죽은 자를 통해서 남아 있는 유족들의 심정까지도 위로해 다같이 상생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의 해원과 상생이란 비단 한 가족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 공동체까지 그 대상으로 넓혀지는 것이다.

다만 그 속에서도 일정부분 존재하는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열명의 약화는 해원이나 상생의 측면 모두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해원의 면에서 볼 때 해원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야 하는데도 그 주체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상생의 면에서도 죽은 자를 기억하고 그를 위로하고자 하는 유족들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굿판의 구체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밖에 혼란스러운 제장의 분위기, 기획단계에서 유족들과의 접촉문제 등은 매해 앞으로의 꾸준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진지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간 역사의 기억을 현재에 되살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해원과 상생의 굿판은 반드시 그 규모가 크거나 웅장할 필요는 없다.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구체적인 방법으로 유족들과 교감하며, 이것이 이후에 공동체의 복원과 연대에 기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이 글은 시론적(試論的) 성격의 한계와 능력부족으로 해원상생굿을 둘러싼 전반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채 문제제기에 그치고 있다. 다음 기회에는 보다 풍부하고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창일·현혜경, 「4·3 의례와 역사적 기억 : 4·3 위령제의 전개양상과 역사적 기억」, 『역사적 기억과 문화적 재현 : 4·3과 5·18 문화운동』 제4회 5·18 기념 국제 학술대회 자료집, 2003
- 김광익, 「정치적 담론기제로서의 민중문화운동 : 사회극으로서의 마당극」, 『한국 문화인류학』 21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89
- 김기삼·김동만, 『다량쉬굴의 슬픈 노래』, (사)제주민예총 4·3문화예술제 사업단, 2002
- 김성례, 「근대성과 폭력 : 제주 4·3의 담론정치」, 『제주 4·3 연구』, 역사비평사, 1999
- 「무속전통의 담론분석 : 해체와 전망」, 『한국문화인류학』 22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90
- 「원혼의 통곡 : 역사적 담론으로서의 제주무속」, 『제주도연구』 6집, 제주도연구회, 1989
- 문무병, 「제주도 굿운동의 실천과제」, 『민족과 굿』, 민족국회, 학민사, 1987
- 「제주도 굿의 연극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 임재해, 「장례관련 놀이의 반의례적 성격과 성의 생명상징」, 『민속놀이와 민중의식(민속학회 학술총서 1)』, 민속학회 편, 집문당, 1996
- 제주 4·3 제50주년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1998
- 제주 4·3연구소, 4·3 제56주기 국제심포지움 「제주 4·3과 동아시아 평화운동 : 평화·인권 그리고 국제연대」 자료집, 2004
- 『4·3과 역사』 3호, 도서출판 각, 2003
- 제주 4·3연구소·제주발전연구원, 「제주 4·3 제55주년 기념 국제 학술회의, “학살·기억·평화 : 4·3의 기억을 넘어” 자료집, 2003
- 제주도·제주 4·3연구소, 『제주 4·3 유적 I-제주시, 북제주군』, 제주도·제주 4·3연구소, 2003
-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도큰굿자료』,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 조성윤, 「산업사회의 무당」, 『전통과 현대』 제6호, 전통과 현대사, 1998년 가을호.
「정치와 종교 : 조선시대의 유교 의례」, 『사회와 역사』 53호, 한국사회사학회, 1998.
- 조성윤 · 박찬식,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지배체제와 주민의 신앙」, 『탐라문화』 19호, 1998.
- 조성윤 · 이상철 · 하순애,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 진성기, 『제주도민속 -세시풍속-』, 제주민속연구소, 1997
- 채희완 · 임진택 편, 『한국의 민중극』, 창작과 비평사, 1990
- 편무영, 「시왕신앙을 통해 본 한국인의 타계관」, 『민속학연구』 3호, 국립민속박물관, 1996
- 원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1986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 현혜경, 「의례, 공연, 그리고 연대의 문제 : 50주년 기념 4·3 도민해원상생곳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제18집, 제주학회, 2000
- 홉스봄(E. Hobsbawm) · 랑거(T. Ranger) 편, 최석영 역, 『전통의 날조와 창조』, 서경문화사, 1995
- 2002년 다량취굴 해원상생곳 영상·사진 자료
2003년 북촌리 해원상생곳 영상·사진 자료
2004년 화북 곤을동 해원상생곳 영상·사진 자료
제주 4·3 문화예술제 관련 각종 팸플렛

〈Abstracts〉

The review of Jeju 4·3 Haewonsangsaeng-Gut

– Focusing on the role of 〈Chasayeongmajji〉 and
the meaning of ‘Haewonsangsaeng’

Kang So-Jeon

Cheju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prepared in order to review Jeju 4·3 culture-art movement.

4·3 culture-art movement has been developed actively in several fields. But this paper is specially focused on ‘Haewonsangsaeng-Gut(해원상생굿)’ of those movements since 2002.

Jeju 4·3 culture-art movement has been connected continuously since the late 1980s. And ‘Gut(굿)’ was central axis in Jeju culture-art movement. And this was always produced for the so-called ‘Haewon(해원, 解冤) and Sangsaeng(상생, 相生)’. Therefore, I will examine how the meaning of ‘Haewonsangsaeng’ appears in ‘Gut’ and how that is connected to ‘Gut’.

4·3 culture-art commemoration is one of the important events to remember the 4·3 in Jeju society and also for the restoration and solidarity of this community.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grams among them is especially ‘Haewonsangsaeng-Gut’.

In fact, the form of the so-called ‘Haewonsangsaeng-Gut’ has been planned by Jeju culture-art movement from the first stage of that movement. However, It has showed the meaningful change since the ‘Darangswi-Gut’ in 2002. It has got to equip the independent and peculiar character in the form and the contents. And It has gained the good reaction of the participants and the spectators. So that ‘Haewonsangsaeng-Gut’ has been situated in the fixed program.

〈Chasayeongmajji(差使靈맞이)〉, the Jeju Island ‘Gut’, is presented in ‘Haewonsangsaeng-Gut’. This Jeju Island ‘Gut’ has the devices to solve the

grudge of the dead person. And those devices such as [Yeonyudakeum(연유담음)], [Jilchim(질침)], [Yeonggaeullim(영개울림)] etc., has been accomplishing the own role. But [Yeolmyeong(열명)], the basic element of 'Haewon', has displayed problem. The problem is the gradual dwindling of its function and meaning.

'Haewonsangsaeng-Gut' has been appreciated in the contribution to the community's restoration and solidarity through the 'Sangsaeng'. But there exist some problems. First, there is the problem of the liaison with the bereaved families. Second, there remains the task to search for the method that could activate the participation of the bereaved families. Third, It has been expected to improve the confused atmosphere of the 'Gutpan(굿판, 祭場)'.

Key Words : 4·3 Haewonsangsaeng-Gut, Chasayeongmaji, Haewon, Sangsaeng, Yeolmyeong